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7년 11월 조사 -

2017년 12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경기DI가 과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50.0을 기록

~ 제조업이 2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를 갱신 ~

(조사대상 2만 3,212사, 유효회답 1만 105사, 회답율 43.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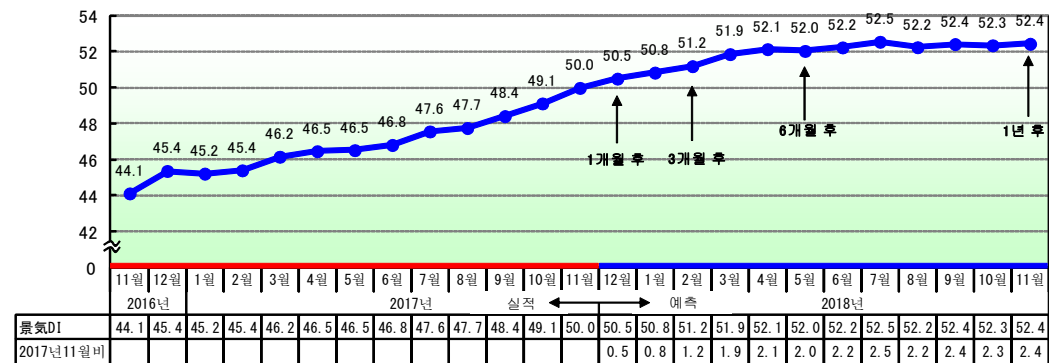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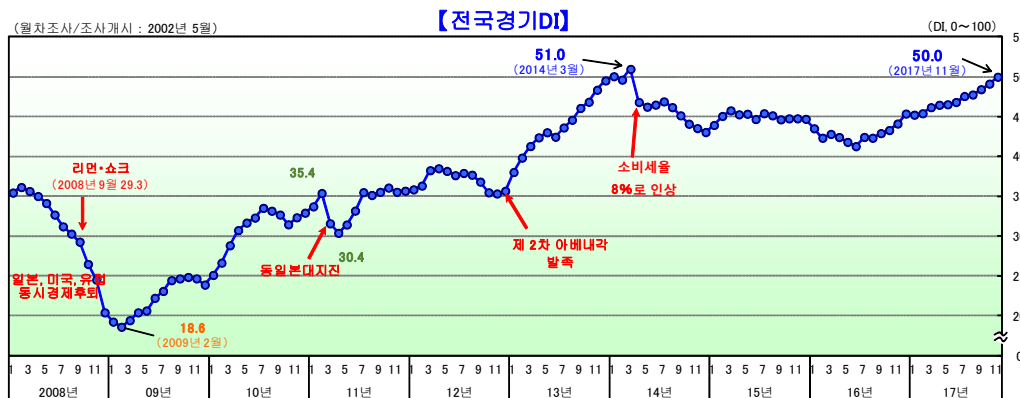
1. 2017년 11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9포인트 증가한 50.0으로, 조사개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경기는 수출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이 2개월 연속 과거최고를 갱신하는 등 회복이 지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부분이 주도하는 형태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7개 업종이 개선되었으며, 2개 업종이 악화되었고 1개 업종이 보합되었다. 기계류나 자동차 관련 등의 수출증가로 「화학품제조」 「철강·비철·광업」 2개 업종이 3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제조」 전체도 2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수요로 인하여 「운수·창고」를 포함한 5개 업종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3. 「키타칸토」 「도카이」 「쥬고쿠」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되었으며, 「홋카이도」가 보합, 「호쿠리쿠」가 악화되었다. 자동차제조사의 중산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공사도 호재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전부가 개선되었고 규모간 격차도 6년만에 2포인트대로 축소되었다.

< 2017년 11월의 동향 : 회복지속 >

2017년 1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50.0가 되어 6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중국수출액이 10월 단독으로 과거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지속해서 확대되므로 추이되는 가운데, 「화학품제조」 「철강·비철·광업」 2개 업종이 3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를 갱신하였으며, 「제조」 전체도 2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로 나타났다. 계절수요가 호재였던 「운수·창고」 등 10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50 이상이었으며,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50 이상이었다. 경기DI는 소비세율 인상전 막바지수요현상이 있었던 2014년 3월(51.0)에 이어서 2002년 조사개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2014년 1월에도 50.0). 국내경기는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이 2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를 갱신하여 회복이 지속되었다.

< 향후전망 : 회복세지속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수출호조가 국내경기를 견인할 것이며, TPP11의 대략합의(大筋合意)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업적의 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성력화(省力化)투자의 고조나 개최까지 1,000일 정도 남은 도쿄올림픽 관련 수요도 영향을 미쳐 설비투자는 증가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부분이 일본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계부분은 겨울 성과금 지급총액증가 등이 당분간 개인소비를 지탱할 것으로 보이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 인력부족의 심각화가 미치는 악영향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환율과 주식시세의 변동에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의 지속으로 인하여 기업부분이 주도하는 형태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